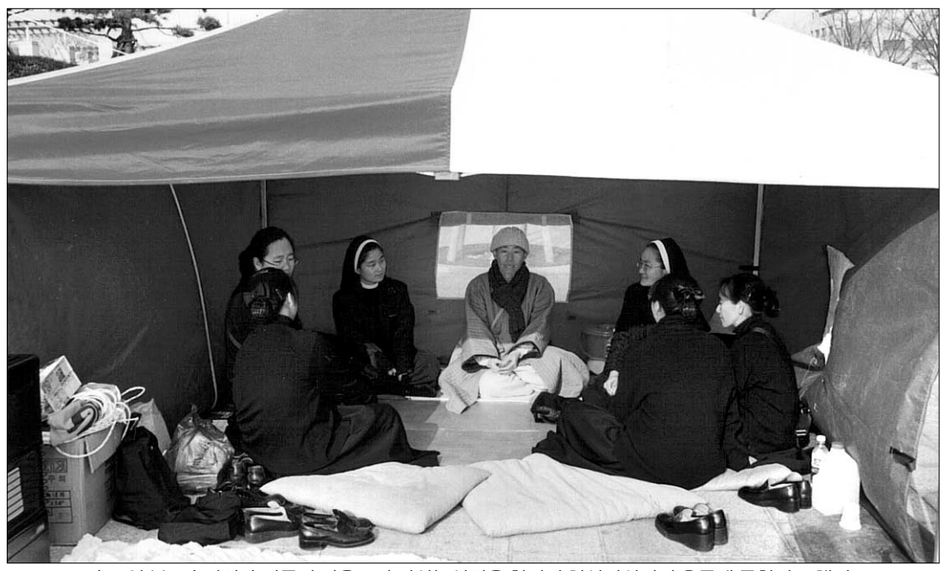


◇10일 분도수녀회 수녀들이 지율스님 단식농성장을 찾아와 천성산살리기 운동에 동참키로 했다.

금정 · 천성산 살리기 단식 D+7

"지율스님 힘 내세요"

혜등스님 등 스님 50여명 기도 동참

신부 · 수녀 · 시민단체 참여 늘어

대활스님 '백지화' 마라톤 시위

금정산과 천성산을 지키려는 각계의 힘이 비구니 지율스님의 단식 농성장으로 결집되고 있다.

단식 철야농성 7일째로 접어든 12일 오전 10시. 단식현장인 부산시청앞에서는 내원사 주지 혜등스님을 비롯한 스님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회기도 법회가 봉행됐다.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관통 백지화 공약 실현을 위한 이날 법회는 혜등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혜등스님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백지화 공약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며 "차디찬 길에서 7일째 단식 중인 지율스님을 생각하면 우리 모든 스님들이 함께 동참해야 하지만 사정이 그러하지 못해 안타깝다"며 눈물을 보여 주위를 숙연하게 했다.

이날 지율스님은 "지금 비록 산을 떠나 있지만 마음은 한순간도 산을 떠난 적이 없다. 산문을 나와 있지만 이곳에서도 정진을 이어가고 있다. 추운 날씨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 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윤희동 신부의 동참으로 단식 농성이 24시간 철야로 확대되면서 맑고 푸른 시민연대, 녹색연합, 늪과 새들의 친구, 환경을 생각하는 불자들의 연대 등 불교단체와 환경단체의 동참이 늘고 있다.

분도수녀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등 수녀님과 천주교 신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내원사 스님들과 불자들은 매일 아침, 열리는 108배 참회기도에 동참하고 있으며 단식과 철야 농성에도 교대로 참여하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대한불교청년회 부산지구와 부산청년불자산악회 회원 50여명이 천성산 화엄벌 일대의 습지 투어를 통해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청년불자들의 힘을 모으는 자리를 가졌다.

이 밖에도 울산 관음암의 대활스님은 14일 금정산 · 천성산 고속철 관통 백지화 공약 실현을 위해 부산역에서 시청까지 달리는 마라톤시위를 했다. 천미희 기자

"금정 · 천성산에 보호 동식물 30여종"

"고속철 대구~부산구간 직선화 해야"

경부고속철 토론회 열려

"금정산 · 천성산 구간의 터널 공사는 지하수위 저하나 고갈 등으로 인한 생태계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계획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13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는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관통 백지화 및 대안 노선결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인현 박사(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는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 천성산 통과에 따른 지질 및 지하수적 영향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병인 교수(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도 '금정산 · 천성산 환경현황과 문제점' 주제발표를 통해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22개의 고층늪지와 30여종의 보호대상 동 · 식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천성산에는 단 하나의 늪지 및 보호 동 · 식물도 없다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호 교수(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는 '부산구간의 합리적 조성을 위한 제언' 주제발표를 통해 "대구-부산 구간은 부산, 경남권의 주민을 위해 직선화하고, 현재 건설중인 대구-경주 노선은 지선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 등 범종단차원 강경 대응키로

통도사, 영축산교구 환경수호 투쟁위 설치

통도사(주지 현문)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초산유원지 개발, 신평우회 도로와 관련된 통도사의 대응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통도사는 10일과 11일, 12일 영축산 교구 환경위원회(집행위원장 산옹) 회의, 임회, 교구본말사 주지회의를 잇달아 열고 교구 본말사와 범종단적인 차원에서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와 신평우회로 원상복구를 위한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영축산 교구 환경위원회 산하에 영축산 환경수호 투쟁위원회를 설치하고 포교국장 오심스님을 투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로써 통도사는 초산유원지 개발 백지화와 신평우회로 원상복구를 양산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통도사 선원장인 천진스님은 17일부터 양산시청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이며 백지화 투쟁에 나섰다.

이 밖에도 통도사는 12일 열린 교구 본말사 주지 회의를 통해 통도사 사부대중의 힘을 결집시켜 무분별한 개발에서 자연환경과 수행환경을 수호키로 결의하고 3월 중 본말사 연합 영축산 환경수호 대규모 집회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투쟁위원장을 맡은 오심스님은 "통도사가 역사 속에서 면면히 지켜온 문화유산인 만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영축산에서 일어나는 난개발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미희 기자

폐암과 싸우며 그린 작품 '염원'

포항 소년소녀가장 돕기위해 기증

정수정 화백

98년 폐암 선고를 받고 투병중인 화가가 사력을 다해 제작한 작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아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정수정 화백은 석굴암 본존불을 형상화한 1백호 크기의 '염원'이란 제목의 작품이 팔리면 수익금 전액을 포항지역 200여명의 소년소녀가장에게 이불 한 채씩을 기증하는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시하는 정화백의 작품은 선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붓으로 수 만개에 이르는 점 하나 하나를 찍어 완성한 점묘화로 작업기간만 50여 일이 걸린 대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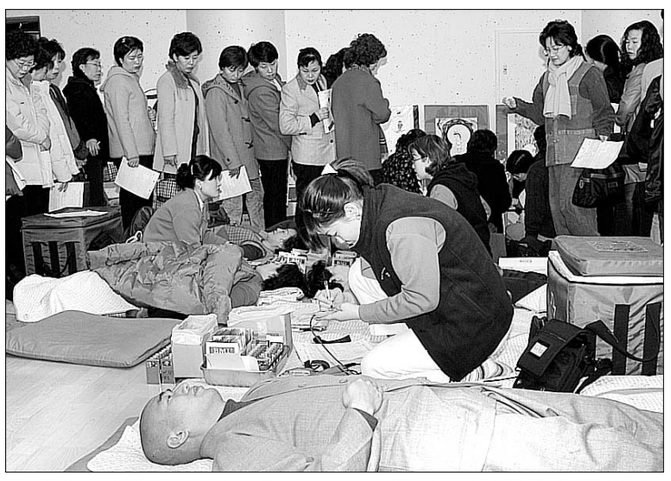
정 화백의 작품 '염원'은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포항시표구연합회 소장전이 열리고 있는 포항 행복갤러리에서 전시중이다.

1981년 한국미술대상을 받은 정 화백은 "여생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타행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박원구 기자

장기기증 · 헌혈 등 인간방생

영남불교대, 서약서 서명 · 이웃돕기 다짐



◇영남불교대 대중스님과 학생들이 10일 장기 기증 서명 및 단체헌혈을 실시했다.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스님)이 장기기증 서명 및 단체 헌혈을 하는 인간방생 행사를 가졌다.

영남불교대학은 10일 생명나눔실천회 총재 법장스님을 초청 53선지식 초청법회를 갖고, 120여명이 서명한 장기기증 서약서 전달과 함께 스님과 신도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3층 대법당에서 단체 헌혈을 하는 등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간방생운동을 전개했다.

법장스님은 이날 법문에서 "일반적으로 물고기 등을 강에 살려주는 것만이 방생으로 잘못 알고 있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인간방생이야말로 진정한 방생"이라며 "자신의 몸에 병이 없기를 바란다면 탐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설했다.

박원구 기자

어린이합창단 창단

울산 정토사, 단원모집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가 어린이 합창단을 만든다.

2월중 단원을 모집하고 합창단을 구성할 예정인 정토사 어린이 합창단은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합회 회장을 지내며 어린이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온 덕진 스님의 원력으로 창단된다.

덕진스님은 "어린이 법회에 나오는 아이들의 맑은 동심이 담긴 찬불가를 통해 어린이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불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 불자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토사 어린이합창단원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로 2월달까지 신청을 받는다. 52)265-5200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

경주 신라전자도서관 개관

논문 · 고서 · 인명 등 DB구축 · 서비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도서관(관장 김복순)은 17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경주신라전자도서관(ksdl.dongguk.ac.kr) 개통식과 함께 <경주신라논저총람>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이날 첫선을 보인 경주신라전자도서관은 경주신라관계 학술지 논문 15,000건, 단행본 7,000여건, 고서 및 고문서 3,000여건, 인명색인 40,000건, 문화재 530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한다. 또 원문 및 사진 · 동영상 정보도 제공한다.

특히, 경주신라전자도서관은 앞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로 된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세계적인 전자도서관으로 거듭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경주신라논저총람>에는 2만 여건의 논문과 4천 200여권의 단행본 등 경주신라관계 논저들이 수록되어 있다.

박원구 기자 bak09@buddhapia.com

중 · 고 · 대학생에 장학금

범어사 신도 · 일념 장학회

범어사 신도회(회장 박수관)는 9일 범어사 설법전에서 제 3회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서정우(부산대학교 1년), 권은비(해동중학교 1년) 학생 등 30명에게 2천 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또한 재단법인 일념장학회(이사장 임대자행)에서는 10일 동양빌딩 7층의 장학회 사무실에서 제8회 장학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이날 중앙승가대에 재학중인 청하스님을 비롯 대학생 5명에게 1백만원씩, 이솔화 학생을 비롯한 고등학생 7명에게 30만원 등 총 12명에게 71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천미희 기자

육임학당 「曉史塾」 제 5기 강의 안내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부설

육임학당 「효사숙」 제 5기 육임강의를 아래와 같이 개강합니다.
사주(四柱)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 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3개월 공부하여 육임 비술을 마음껏 펼치시기 바랍니다. 활인천역자로서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단, 돈만 낸다고 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활인 천역자로서의 기운을 따져 크게 쓰일 분만 선별 입강시키고 있습니다.

◆ 개강일시 : 3월 7일 금요일 오후 5시(오행기초교습은 오후 3시부터 2시간씩 매주 사전교육함)
◆ 강의장소 : 서울 수유리 소재 강북구청 옆건물 4층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8번 출구 강북구청 마주보고 오른쪽 첫건물)
◆ 강의비용 : 1백 5십만원(전국 육임학당 교재 「효사육임강의록」 드림)
◆ 강의기간 : 3개월 52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기초자는 3시부터)
◆ 대 상 : 스님 · 신명제자 · 오행가 · 명상가 · 기공가 · 목사 · 신부 · 수녀
◆ 강 주 :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총재 효사
◆ 마 감 : 2003년 3월 3일 까지
◆ 문의전화 : 02-993-333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각지역 동시 개강 안내
육임학당 인천숙 (강주 : 자우스님) 011-729-6011
육임학당 부산숙 (강주 : 단곡법사) 011-883-8347
육임학당 대구숙 (강주 : 월사선생) 016-580-6654
육임학당 전주숙 (강주 : 상화선생) 011-650-8835
육임학당 진주숙 (강주 : 남곡선생) 011-567-1641 효사 출장강의 함
육임학당 광주숙 (강주 : 유선선생) 011-9606-7090 효사 출장강의 함

활인천역자(活人天役者)의 오행(五行) 능력을 단번에 고차원으로 인도하는 육임서(六壬書)안내

- 사주(四柱) 10년을 공부해도 육임(六壬)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능력을 따를 수 없습니다 -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 값2,500,000원 부록 · 비디오 全12권
활인천역자의 필수서! 귀신 · 산소탈 · 부정빌미를 정확히 잡아낼 수 있고, 그 해소 법이 구체적으로 체출되어 있는 비기서! 이 책은 3년간 정확도가 검증되었습니다. 이책은 공부않고 볼 수있고 시간만봐서 말하는 책입니다. 넉넉한 살림이 들어있습니다.

육임신수비결 값250,000원 全753페이지
아주 쉽게보아, 큰행사에나 참례하는 잠자는 많은 신도들을 1년내내 깨어있게 할 수 있는 정확한 비서! 정초에 보아, 신도카드에 붙여두고 개개인의 월별 길흉에 따라 직분수행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기서! 이책에도 살림살이가 들어 있습니다.

육임강의록 값300,000원 全1163페이지
「공익법인한국육임학회」 각 주요도시에 설치한 「육임학당」의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육임공부의 정통서! 쉽고, 체계적으로 되어있어 독학할 수 있도록 된 보고장서! 특히 「형이상법(形而上法)」 편이 백미입니다.

육임비디오강의 값900,000원 全28개
「육임학당효사숙」 제 1 기 강의가 편집없이 그대로 수록된 육임 이정표! 「육임강의록」과 함께 인기를 얻고 있는 희귀품!

육임래정비법수정보완본CD 값2,000,000원 全1개
온(전화) 시간만 톡 치면 수정보완본의 내용이 그대로 화면에 나타납니다. 다음순서 시간이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효사육임인터넷강의 값1,500,000원 총112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육임 공부가 될 수있게 하였습니다. 활인천역자의 가장 값진 투자가 될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강의안내
3개월 52시간 수강으로 육임비술을 자신있게 펼칠수 있습니다. 등록비는 1백 5십만원이며 「효사육임강의록」 교재를 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기적으로 강의합니다.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 주문,신청전화 : 02-993-8680 / 부산지사 : 051-851-2349
도서출판 복문